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광주의 문화 풍경 ‘폴리’

물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장식적인 역할만을 하는 건축물로, 과거 유럽에서 주택의 정원에다 장식 목적의 조형물을 짓던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1980년대 버나드 추미(Bernard Tshumi)가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Parc La Villette)을 디자인하면서 사용한 이후, 도시 속에 문화적 특성을 가지는 소규모 공공시설물이라는 의미로 건축계에서 통용되었다. 도시의 특별한 장소에 설치되는 이 작은 시설을 통해 도시에 문화적 활력을 전파시키기 위해 여러 도시에서 추진된 바 있다. 실용성이 배제된 채 장식만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효율성의 원리로 획일화된 도시 건물들 속에서 일시적인 일탈감과 해방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폴리는 규모는 작지만 주변에 문화적 자극제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필요한 장치로서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일회성·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집단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때, 디자인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시작된 광주폴리 프로젝트만 나중엔 독립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더니 현재 광주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형이다. 현재는 광주블게이트에 관문형 폴리가

미디어아트 형태로 설치되고 있다. 광주폴리는 도시 안에서 단위 개체로 작동하기보다는 군집되어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며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도시 안의 폴리들은 지난 시간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도심 공동화를 경험하고 있는 광주의 구도심 지역에 강력한 문화적 힘을 전달하여 도시 재생에 힘을 더하고 있다. 도시의 문화 풍경을 형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활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30여 개에 달하는 폴리가 있다고 하니 길을 걷다가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폴리는 누군가에게 특정 장소를 설명할 때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주기도 한다. 개성 있는 외형으로 눈에 잘 들어오는 만큼 그 위치와 특징도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쓸데없이 통행만 방해하는 조형물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광주폴리의 쓸모는 바로 그 쓸모없음으로 인해 생겨난다. 버나드 추미가 말했던 것처럼, 획일적인 도시 건물들 사이에서 폴리는 약간의 낭비이자 약간의 쓸모없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여유와 호기심을 환기시켜 준다. 우리의 일상엔 폴리로 인해 만들어진 문화 풍경을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도시 광주를 대

표하는 상징 가운데 하나이고 10여 년간 지속된 광주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폴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의 시민사회나 일부 문화계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폴리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 폴리로서 인기가 높은 작품도 있지만, 현재도 몇몇 폴리는 흥물스럽다가거나 개방감을 해친다가나 등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 당시에는 가치 있거나 현재·과거·미래의 상황을 반영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세월의 흔적이나 시간의 때 혹은 변화에 대한 바람 등 다양한 이유나 목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그곳에서 도심 활성화, 문화 영향력 등과 같은 기준에 했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폐기보다는 이동에 힘을 쓰고 싶다. 위치는 현재 원호사 이전 부지, 그리고 지자체가 원하는 곳에 조성하여 폴리의 생을 더 이어가게 했으면 한다. 아름다운 광주의 문화 풍경을 위하여.

社說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기준 재검토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의 부지 선정 기준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남도 등 전국 다섯 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평가 배점이 수도권 인접 후보지에 유리하게 구성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다목적(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의 부지 유치 공모 계획과 평가 항목·기준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8000억 원을 포함 총 1조 원을 투입해 가속 장치동, 빔라인 40기 등 연구 및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과거부는 오는 8월까지 유치 의향서를 접수받아 다음 달 초 현장 확인 및 최종 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나주)을 비롯한 인천(송도), 충북(오창), 강원(춘천), 경북(포항) 등 5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부지 선정에 관한 평가 지

표 구성과 항목별 배점이 수도권에서 밀수목 불리하게 구성된 점이다. 100점 만점 가운데 50점이 부여된 입지 조건의 경우 여섯 개 평가 항목의 절반이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정주여건 등 위치와 접근성 위주로 짜였다. 또한 평가 지표 선정이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뤄진 데다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도 제시되지 않아 공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의 입자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방사광 가속기는 기초 과학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 지역에만 없어 지자체들이 연구 시설이나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항목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간 부산 배치를 통한 재난 안전성 확보다.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불법 주정차 극성 시민의식은 어디로 갔나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의 막무가내 '암체 주차'가 여전히 극성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목격하면 주민은 1분 간격을 두고 위반 사진 두 장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해당 관할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도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소화전 부근이나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버젓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이 먼저 더욱 심해진다. 실제로 본보 기사가 돌리던 결과, 지난 2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광산동 소화전 앞에는 은색 승용차가 보란 듯이 한 시간 가까이 주차했다. 빨갈게 칠해진 인도 쪽 경계석과 선명하게 적힌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안내문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경우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 5월 4562건 접수된 뒤 4743건(8월)→5192건(10월)→5042건(12월)→5212건(1월) 등으로 꾸준한 실정이다. 지난 달에만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줄면서 3932건으로 줄었을 뿐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경우 은행이나 마트 등을 가기 위해 5-10분가량 주차하는 차량이 많다. 하지만 아예 한 시간 넘게 장시간 주차를 하는 차량들도 쉽게 눈에 띈다. 이들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은 주변에 주차료가 저렴한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외면한다. 이들 역시 평상시 운전하면서 도로 모퉁이 등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면 짜증을 냈을 것이다. '잠깐일 뿐인데' 하는 생각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자치단체와 경찰의 지도·단속이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 하겠다.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꿈꾸는 2040



이선 위민연구원 이사·이강희미술관 학예연구사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주하는 예술

머릿속이 메말라 가고 기분이 한없이 처진다. 막연한 현실에 대한 갈등 속에 예술은 어떤 의미로 전달될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바이러스로 살고 있었을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만든 잠시 멈춤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천천히 우리를 들여다 보게 되었다. 예술(art, 藝術)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된 고귀한 즐거움이자 정신적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행위다. 바쁜 일상 속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 찻집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을 들고 신문을 통해, 핸드폰 웹 기사를 통해, 가볍게 또는 무겁게, 팍 막힌 현실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 안아줄 예술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 의미를 마음껏 느껴 보면 어떨까? 우리가 느끼는 예술을 전해 주는 예술가는, 과거나 지금이나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도 예술을 확인하고 예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작품을 만들어 냈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끌어 모아 만들어 내는 작품들은 우리에게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면 문명적 위기에

대항 감성적 위로와 면역력을 '순수한 예술'로부터 찾아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예술을 통한 회복 방식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까? 우리는 예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일까? 결국 나는 무엇을 느끼려고 하고 있나? 예술(art, 藝術)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된 고귀한 즐거움이자 정신적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행위다. 바쁜 일상 속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 찻집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을 들고 신문을 통해, 핸드폰 웹 기사를 통해, 가볍게 또는 무겁게, 팍 막힌 현실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 안아줄 예술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 의미를 마음껏 느껴 보면 어떨까? 우리가 느끼는 예술을 전해 주는 예술가는, 과거나 지금이나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도 예술을 확인하고 예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작품을 만들어 냈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끌어 모아 만들어 내는 작품들은 우리에게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면 문명적 위기에

보여지고 느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의지대로 예술과 그림은 바라보는 것만큼 보이고, 그만큼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요즘 시대에 마주하는 마음의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채워 나가는 것, 그것이 나는 예술이 되길 간절하게 바라며 일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그 의미를 마음껏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과거 예술가들과 현재 예술가들, 그들이 마주했던 시대와 주관적인 관점에서 탄생된 작품들은 소중한 문화 자원으로 남아 허무하고 공허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함의 좌표나 의미로서 '예술의 존재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고

코로나19와 '재난인문학'

인간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이 설정한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재난인문학의 정립'이 중요한 인문학 연구 아젠다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다. 재난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일은 무엇일까? '재난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학문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재난에 대한 접근이 인문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과연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일이다. 만일 인문학이 전통적으로 그 중심을 '인간'에 두고 있으며, '인간적인 것' 또는 '사람다움'에 대한 성찰과 사유를 핵심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본다면, '재난인문학' 역시 재난을 경험한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인간적 가치 또는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묻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난인문학이 대상으로 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우선 재난인문학은 재난에 대한 인간의 기억과 기록 및 인식의 변화 등을 하나의 영역으로 삼을 수 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 또는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닥치고 말 미래의 시간을 축으로 재난을 온몸으로 경험한 인간과

공동체가 기억 또는 기록하고 있는 재난의 역사와 함께, 재난 및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내는 작업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난 재난의 모습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차원에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작업도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재난 관련 자료를 활용한 대규모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토대로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재난인문학에서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영역은 '재난의 서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의 서사'란 인간이 재난의 역사 또는 재난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어떻게 재현해 내고 형상화하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세상 강조하여 말할 필요 없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경험한 실로 다양한 재난들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다양한 장르의 문학 텍스트를 비롯한 예술 작품에 그려내었다. 따라서 재난인문학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다양한 장르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을 통하여 재난을 재현하고 형상화해 내고 있는 지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그러한 작품들에서 그려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 혹은 인간성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재난인문학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층위는 바로 '재난

의 치유'이다. 당연히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재난을 수습하고 재건하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재난의 수습과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와 돌봄, 정신적 패니 상태에 대한 진심 어린 소통이다. 따라서 재난인문학은 재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공동체가 재난으로부터 받은 충격과 심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문학 위기가 확산되면서 인문학 자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인간의 삶은, 그것도 그냥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재난인문학은 재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바라보고 그 흔적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는지 방법론을 찾으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인문학은 재난에 대한 기억을 안고, 언젠대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의 가능성 속에서 이를 언대의 단서로 삼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 한다. 이러한 인문학이아말로 위기의 인문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한다.



강희숙 조선대 HK+사업단장·국어국문과 교수

無等鼓

'지옥'의 이미지는 어느 종교에서나 비슷하다. '희망과 구원이 없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주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여겨 오던 사람들은 '죽어도 결코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는 생각에 전율했고, '천재적이지만 사악한' 이 개념은 사람들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각인됐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 단테도 '신곡'의 '지옥' 편에서 "이곳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여, 희망을 포기하라"고 지옥문을 묘사했을 정도다. 하지만 지옥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국의 매력에 대해 "저 아래 지옥에서 저주받고 고문당하는 이들의 고통을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발코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국의 발코니는 '저주받은 자들이 지옥에서 받는 형벌을 바라보면서 더 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천국의 성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엔 '반문명적 성범죄'를 저지른 20여 만 명이 들어가야 할 규원지

천국의 발코니

옥(吡嶼地獄)이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들 '최악의 범죄자'들은 살아 있는 동안 '현실의 감옥'과 '영원한 사회적 낙인'이라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문제는 디지털 공간에서 자행된 잔혹한 범죄 행위에 뒤늦게 놀라고 한탄하며 단죄를 요구하는 우리들은 천국의 발코니에 자리 잡고 형벌의 고통을 관망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며, 오히려 공범에 가깝다는 점이다. 디지털 공간의 은밀한 구석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 우리,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도 침묵했던 우리 모두는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무려 20여 만 명이 참여한 거대한 성범죄 소굴의 탄생을 막아 내지 못한 것, 그리고 이들의 범죄 활동을 묵인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것은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가 어울려 사는 공동체에서 천국의 발코니에 편히 앉을 수 있는 성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